

종교와 과학 사이의 충돌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철학은 종교와 과학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충돌에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철학은 종교로부터 문제의식을 빌려오고 과학으로부터 사물의 본질과 현상의 구조에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존재를 인식하는 근거가 되었을 때에는 종교와 과학 사이에 큰 충돌이 없었다. 가령 중세에는 과학이 잠복기에 있었고 철학은 신학의 시녀 역할에 만족해야 했으므로 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킨 1925년 ‘버틀러법’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인간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되고 신의 피조물로서의 위상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자 종교와 과학의 충돌은 점차 구체화되었으며 그만큼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진화론은 창세기의 성경적 해석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세계관과 인간관, 그리고 가치관의 전도를 촉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5년 미국 테네시 주의 소도시인 데이턴에서 진화론 교육 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존 워싱턴 주 의회 의원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1월 28일 주하원에서 71대 5로, 3월 13일에는 상원에서 24대 6으로 통과되었다. 남부의 보수적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것이 이른바

‘버틀러법’이라는 것이었다.

진보단체인 ‘미국시민 자유 연합(ACLU)’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버틀러 법을 법정까지 끌고 가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자를 물색했다. “변호를 맡을 테니 범법자가 되어 달라”는 주문이었다. 스콧스라는 체육교사가 지원자로 나섰고 그는 수업시간에 진화론을 강의하다가 5월 기소되었다.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가 맞붙은 세기의 재판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 교사의 변호인측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성경이 신학과 도덕의 영역에 머물러야지 과학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검사는 “진화론은 도덕적으로 해롭다”고 반복했다. “인간이 3만5천 종의 포유 동물 중 하나에 불과하며 미국 원숭이뿐만 아니라 유럽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그는 탄식했다.

변호인측이 내세운 법적 쟁점은 “버틀러법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버틀러법이 진화론 교육을 금지할 뿐 특정 종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며 스콧스 교사는 주정부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배심원들은 7월 21일 스콧스 교사에 대해 100달러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진화론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진보 신문 볼티모어 선은 ‘이 단자 스콧스의 원숭이 재판’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 뒤 이 소송은 ‘원숭이 재판’으로 불리게 되었다.

1981년엔 “‘창조과학’은 일종의 종교” 판결

버틀러법은 1967년에야 폐지되었다. 하지만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은 아직도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적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1981년 12월 아칸소 주의 리틀록에서도 일어났다. 이것도 미국시민자유연합과 연루된 사건인데 이번에는 진화론과 함께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여기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라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그러므로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것은 “창세기가 절대적으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진화론의 철학자 루스는 그 이유를 그의 ‘진화론과 철학’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창조과학은 검증받을 수도 없고 시험할 방법도 없다. 사실 창조과학을 과학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분 짓는 속성은 그것이 모든 답변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인간의 기원, 생명, 그리고 우주 등과 같은,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의 중대성을 살펴볼 때 그 확신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창조 과학은 그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험가능성과 반대되는 태도이며 검증을 비웃는 일이다.

이것은 그가 2004년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술화한 대목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그는 대체로 포퍼의 과학관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아직 반증되지 않은 것만 진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창조과학은 검증이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표현이 무조건 허위라거나 우리의 삶에서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과학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뜻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과학언어와 전혀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서로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뜻인가.

비트겐슈타인, “종교언어는 어떤 언어로도 번역 안 돼”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종교 언어는 그 고유한 ‘언어판(language game)’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과학언어나

윤리 언어, 그 밖에 어떤 언어로도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가령 그는 ‘강의와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죽은 뒤에 서로 만나자’라는 표현은 ‘나는 너를 무척 좋아 한다’는 표현과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표현과도 동일하지 않다. 그 표현은 그것이 말하는 것을 말할 뿐이다. 어째서 그 표현을 다른 표현들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여기서 그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 한다’는 표현 속에 반드시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나는 너를 무척 좋아 한다’는 우정이나 애정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나의 생물학적 죽음에 관한 기술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죽음이 내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종교적 단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를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역사적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종교적 표현에도 사실적 의미가 담겨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철학에서 주목하는 점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 항상 분명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객관적 사실의 규명이 과학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종교가 주관적 가치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의 진보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방법론적인 개방성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험적 증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와 추론을 통해서 얻어 내는 결과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철학은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것도 현대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